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님께,
창조주께서 나뭇잎을 온통 울긋불긋 물들이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은 그 권능 앞에 인간됨을 인지하고, 다시 겸손과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계절입니다.

저는 지난 주 아프리카 케냐, 우간다, 그리고 에티오피아를 다녀 왔습니다.
케냐에서는 저희들이 나누어 준 영양식품이 잘 보급 되었나 살펴보았고
우간다에서는 영양식품을 알리기 위해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빈손채움에서 제공한 커피 가공시설의 가동 여부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 소식을 기도편지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항상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는 동역자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과 섬기시는 공동체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빈손채움 / 채종욱 드림



빈손채움 기도편지 23 호
OCT 13, 2017

<아프리카 사역>

케냐 나이로비 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 6 시. 한국은 가을로 접어 들었지만 이곳은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의 차이가 많지 않아서 늘 가을같은 푸르고 높은 하늘과 고지를 스쳐가는 구름은 아프리카의 정취가 물씬 풍겼습니다.



< 나이로비의 하늘 >

다음 날 밀알재단의 아프리카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 직원들과 함께 사역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지를 서로 확인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뇌성마비 어린이 물리치료 >

밀알재단에서는 뇌성마비 소아들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와 지능개발을 위한 학습지도 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장애자 어린이를 위해 전문 테라피스트가 뼈와 근육이 굳어지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전신 마사지를 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 스러웠습니다.

눈동자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고 사지가 뒤틀려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 어린이가 치료 후 목을 들 수 있고 책상에 혼자 앉을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았습니다.

이 작은 섬김들이 한 생명에게는 소망과 미래를 안겨주는 벅찬 감동이었습니다.

김해영 본부장께서 “나도 이런 치료를 어릴때 받았더라면 지금과 같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같이 잘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간다 에서 열리는 Geneva Conference 에 참석 >

제네바 컨퍼런스는 유엔산하 NGO 로써 주로 난민과 빈국 개발을 돕기 위해서 세계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 이슈를 논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컨퍼런스 입니다.

이번에는 우간다에서 개최하면서 저는 구호식품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왼쪽으로 부터, 이우성박사(과학기술정책), 정동구 회장(전 체대총장), Hal Jones (Global Hope President & CEO), 박종대 대사(주 우간다 대사), 김의환 이사장 (쿠미대학교 이사장), 채종욱 회장(빈손채움 이사장), 이영길 총장 (쿠미대학교 총장)

이번 컨퍼런스는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을 농업에 접목, 주변국의 난민대책, 가난과 인신매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변화등에 대한 이슈를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현지 쿠미대학과 우간다 국회의원, 장관들이 참여해서 3 일 동안 진지하게 논의한 장이었습니다.

우간다 현지인들은 자국에 대한 애국심과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개발에 대한 안타까움이 공존하는 곳이었습니다.



<60 명의 우간다 국회의원들이 참석>



<반가운 만남 >

< 우간다 국가 조찬 기도회 >



<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 >



< 조찬 기도회 참석 >

제네바 컨퍼런스 참석자 중 주요인사들이 우간다 국가 조찬 기도회에 초청 되었습니다.
정부 각료들과 외국 내빈들이 참석해 우간다와 아프리카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감동적이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낫다”

그러나 여기 이곳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온 민족이 기도하는 모습가운데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척박한 나라지만 장래 소망이 있고 축복된 나라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기도하는 이나라가 부러워 졌습니다

“만약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땅을 고칠 것이다” <역하 7:14>

기도 소리가 그쳐버린 한국 땅은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로 가다 >



<아둘라라 호수 에서>



<비니엄 형제와 함께 제베나 커피>

우간다 일정을 마치고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로 갔습니다. 그곳은 함께 동역하는 비니엄 홍 형제가 사는 곳입니다. 커피농장을 방문하기로 했지만 길이 험하고 너무 무리한 여정이라 취소하고, 형제와 함께 아디스아바바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형제는 많이 지쳐보였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루를 같이 지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속내를 드러내고 얘기 하면서 외로웠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매력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빼어난 자연경관과 커피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 유일하게 한 번도 정복을 당해 보지 않은 자기만의 문화가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보석이 원석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개발되지 않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내년 1 월에는 빈손채움에서 보낸 커피가공시설을 시동하는 공식적인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150 개의 커피 농장들에게 가공시설을 제공하므로 농가소득이 증대되어 조금이라도 그들의 한숨과 주름살이 펴졌으면 합니다.



< WFP 점보 항공기 >

우간다 공항을 떠나올때 3 대의 WFP (세계식량기구) 항공기를 보면서 아직도 세계는 먹이려는 사람들이 이 검은 대륙으로 몰려 오는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WFP 는 유엔 단체로 60 개국 나라가 내어 놓는 기부금으로 연간 12.6 억 달러 (12.6 조원) 의 예산으로 세계 난민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돕고 있습니다.

소유한 트럭 6,000 대, 배 20 척, 항공기 70 대로 식량을 공급하는 어마어마한 규모 입니다. 이번에 총재 David Beasley 를 만날수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를 떠난지 꼬박 25 시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많은 NGO 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GBM 의 구호 식품에 대한 소개로 홍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 컨퍼런스를 위한 기획과 운영을 맡으신 쿠미대학교 이영길 총장님의 초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수 많은 빈손들이 있음을 봅니다.
귀를 열어 주님께 귀 기울이면 이웃을 도우라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 순복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이다”

채종욱 / 박동희 드림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빈손채움

johnchae11@gmail.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7 길 47 서규빌딩 2 층 (06166) +82-02-6462-1530

[수신거부](#) [Unsubscribe](#)

이 메일은 스티비로 만들었습니다 📧